



보도시점 2026. 1. 29.(목) 11:00
1. 30.(금) 조간

배포 2025. 1. 29.(목) 09:00

농식품부,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최종합격자 57명 확정

-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첫 국가전문자격 인력 배출
- 원예 33명·축산 24명 합격, 스마트농업 보급·컨설팅 가속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1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 57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현장 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 보유자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교육·지도·기술보급 및 데이터 기반의 경영분석과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제1회 자격시험은 원예와 축산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학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련 기술사(시설원예·축산) 중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원예분야 33명(시험 합격 25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8명), 축산분야 24명(시험 합격 6명, 기술사 중 교육 수료 18명) 등 총 57명이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기존 농업기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의 이해, 데이터 분석, ICT 융합 실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격자 배출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관련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해 자격 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멘토링·컨설팅·교육 사업 등에서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인력 운영 시 자격 활용 방안에도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2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올해 5월 중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8월에 1차 시험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합격자 배출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격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2411)
		담당자	사무관	명바른 (044-201-2425)